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3, pp. 291-299,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3.291

창의융합 교육과정 여고생의 진로결정효능감 구조모형

송미순[1], 김민숙[2*]
[1]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High school Girl in the Creative Convergence Curriculum

MiSoon Song[1], Min-Suk Kim[2*]
[1]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Cultur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여고생의 부모양육태도, 가족기능, 자기관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구조모형을 만들고 검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중소도시의 인문계 여고생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255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적합지수 χ^2/df=2.84, GFI=0.91, SRMR=0.05, NFI=0.91, CFI=0.93, RMSEA=0.08로 권장수준의 적합성을 나타냈고, 9개 경로 중 6개 경로가 48%를 설명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여고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기능의 향상을 통한 자기관리의 개발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어 : 진로결정효능감, 부모양육태도, 가족기능, 자기관리, 여고생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analyz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parents attitudes, family function, self-management,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high school girls. *Method*: The high school girls was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and 255 data units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 The hypothetical model fit indices for the model revealed a fit at a recommended level(χ^2/df=2.84, GFI=0.91, SRMR=0.05, NFI=0.91, CFI=0.93, RMSEA=0.08), and 6 of the 9 path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ining 48% of the variance.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for high school girls,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develop and practice self-management through the improvement of home and family functions.

Key Words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arents Attitudes, Family Function, Self-Management, High school Girl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 신념, 삶을 형성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환경과 생태학적 맥락 안에서 상호작용을 한다[1].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서 이러한 맥락은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Corresponding Author : Min-Suk Kim(mskim9597@bscu.ac.kr)
Received November 5, 2019 Revised February 10, 2020
Accepted March 20, 2020 Published March 28, 2020

정보 수집과 탐색, 그리고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대학 및 전공의 선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진로결정은 졸업 후의 미래 직업을 결정하고 삶의 목표와 질과도 관련되므로 학생이나 부모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2].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은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가족 기능과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진로결정은 본래 자신의 관심과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한국처럼 가족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부모나 가족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5].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야 하고, 많이 배워야 한다는 교육적 성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포부는 고등학교 진로결정에서 매우 많은 영향력을 나타낸다. 아직은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의 결정에 대하여 부모들은 불안하고 확신을 하지 못하므로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고 한다. 학생과 부모와의 갈등에서 진로결정과 목표수립 및 진로관련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진로결정효능감이 보고되었으며,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혼란과 불확실성을 덜 경험하고,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6-8].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6]. 자기평가는 스스로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정보수집은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목표설정은 미래 진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진로계획은 진로목표성취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문제해결은 진로목표성취를 위한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하였다. 즉,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노력과 자기 평가에 대한 확인 및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결정효능감은 개인적 배경과 특성, 환경적 요인 및 다양한 경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학교생활, 학업성취, 삶의 만족 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3,7,9,10]. Bandura(1986)를 비롯한 많은 연구가들이 청소년시기인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5,11,12]. 가족은 자녀가 생애 처음 경험하는 관계 형성과 교육의 장이며, 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주며 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연습하는 일차적 사회 환경이다[3,13]. 긍정적 가족은 변화 시기의 청소년의 발달에 사회 적응적 기초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에 대한 관심과 영역을 확장시키고,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14]. 긍정적 가족은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응집성과 적응성을 높게 나타난다. 즉, 자율성과 개별성을 존중해주고, 구성원들이 성장과 발달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외부 상황을 통제/조정할 수 있으며, 서로 격려하고 노력해주는 가족이다[15]. 가족기능을 포함한 가족 구조와 관계,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가치관 및 태도는 청소년의 생활방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며, 진로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초 환경으로 나타났다[5,14]. 또한, 가족의 중심이 되는 부모는 핵심 양육자이며 진로발달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조언자이기도 하다[16]. 부모는 출생에서부터 성장하는 기간 동안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가족 존중/의무 및 삶 전반에 필요한 관계형성기술, 사회 행동 등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기관리역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양육한다[5,17,18]. 이러한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은 아이에서 사춘기를 거쳐 청소년기에도 지속되어 고등학생의 부적응 행동, 자존감과 우울증, 학문적 목표와 성취, 진로결정효능감 등 개인 내적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19-23].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자기관리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기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것은 고등학생들의 성공적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20,21]. 부모양육태도 유형과 자기관리가 고등학생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관리의 직접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매개로 진로결정효능감에도 영향을 주는 모형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기관리는 자기관리, 자기통제, 자기조절, 자기수정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배경요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2]. 자기관리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지행동 및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자기통제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 건강한 관계 형성,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등 성공적인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20]. 고등학생의 자기관리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표현 및 실천을 포함하므로 일상생활의 성과로 나타나기도 하며, 고등학교 교육에서 성취하여야 할 핵심역량이다. 자기관리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이 영향을 줄 수 있다[24], 또한, 자기관리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기술이므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지도와 훈

련이 요구되기도 한다. 자기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고등학생은 진로결정과정에서 능동적인 행동과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기수정으로 진로결정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다[25]. 따라서 자기관리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개인 요인으로는 자기관리, 자기능력 등이 있었고, 부모 관련 요인으로는 지지, 애착, 진로기대, 양육태도, 관계 등이 보고되었다[3-5,20,26-3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결정효능감 측정 도구와 대상자에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대부분의 진로결정효능감 연구는 관련 요인을 단편적으로 조사하거나 매개요인으로 조사한 경우가 많았다. 고등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은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경험한 환경에 따라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신념으로, 부모와 가족 기능에 의해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자기관리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 따라서 부모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가족기능과 자기관리는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가족기능과 자기관리의 관계를 연계시키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선택에서 남학생보다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도된 여고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가족기능, 자기관리의 관계를 규명하고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 및 자기관리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C도의 여고생 255부의 설문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1.3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여고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문헌고찰과 현장경험을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기능과 자기관리 변수를 거쳐 진로결정효능감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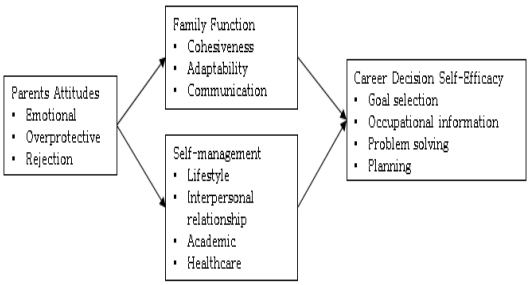

Fig. 1.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study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고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부모관련요인을 규명하고 모형을 구축한 후 요인간의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구조모형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자료수집은 C도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1일~30일에 실시하였으며, 학교장과 학교 담당선생님에게 연구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함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하였으며, 응답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255부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는 구조모형 연구에서 최대우도법과 임계치를 충족하는 200명 이상을 만족하였다[31].

2.3 측정도구

2.3.1 진로결정효능감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은 학생들이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제와 행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측정하는 Betz 등[6]의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CDMSES-SF)을 이은경(2001)이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개 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5이었다.

2.3.2 부모양육태도(EMBU)

본 연구에서는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Arrindell & Engebretse[32]의 EMBU-short (Egna Minnen Betraffande Uppfostran)를 강재기(200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거부, 애정, 과보호 등의 총 23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거부적 .76, 애정적 .91, 과보호 .82이었다.

2.3.3 가족기능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은 Noller 등[33]의 ICPS-FFS (ICPS Family Functioning Scales)를 이지원(2006)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응집력, 가족적응성, 가족의사소통의 3개 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효능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다.

2.3.4 자기관리

본 연구에서 자기관리는 정호순 등[34]의 도구 중 생활습관관리(7문항), 건강관리(7문항), 학업관리(7문항), 대인관계관리(7문항)의 4개 영역만 이용하여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4.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4.0와 Amo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부모양육태도, 가족기능, 자기관리,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서술적 통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특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모형검증과 직, 간접 경로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서술적 통계

연구대상자는 1학년 55명(21.6%), 2학년 112명(43.9%), 3학년 88명(34.5%), 가정에서의 형제순위는 첫째 119명(46.7%), 둘째 이상 136명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104명(40.8%)이었고, 주관적 생활수준이 보통이상 247명(96.9%), 용돈에 만족한다는 학생 188명(73.7%) 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상 195명(76.5%), 학교생활만족도는 보통이상 214명(88.6%)이었고, 수면시간은 8시간 이상은 32명(12.5%)이었다.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부모양육태도의 애정 15.95(±3.00), 과보호 23.84(±3.20), 거부 21.29(±2.15), 가족기능의 응집력 38.02(±7.65), 적응성 27.60(±5.29), 의사소통 22.91(±2.15), 자기관리의 생활습관관리 25.76(±5.08), 건강관리 23.10(±5.36), 학업관리23.33(±5.36), 대인관계관리 28.17(±4.92) 이었다.

Table 1. Correlations among Observed Variables

(N=255)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Goal selection	1													
2. Occupational information	.84**	1												
3. Problem solving	.59**	.67**	1											
4. Planning	.61**	.64**	.53**	1										
5. Emotional warmth	.22**	.26**	.13*	.15*	1									
6. Overprotection	-.11	-16*	-.09	-.06	-74**	1								
7. Rejection	-13*	-13*	-14*	-.05	-47**	.52**	1							
8. Cohesiveness	.36**	.39**	.30**	.36**	.36**	-20**	.06	1						
9. Adaptability	.31**	.26**	.22*	.24**	.20*	.01	.16	.72**	1					
10. Communication	.19*	.23*	.15	0.15	.24**	-.12	-01	.38**	.62**	1				
11. Lifestyle	.47**	.41**	.33**	.37**	.16**	-.02	-01	.40**	.33**	.39**	1			
12. Healthcare	.39**	.41**	.36**	.474*	.24**	-.16*	-13*	.42**	.24**	.18	.54**	1		
13. Academic	.54**	.53**	.46**	.55**	.30**	-22**	-15*	.44**	.33**	.28**	.69**	.64**	1	
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49**	.44**	.35**	.39**	.33**	-25**	-.09	.56**	.41**	.43**	.42**	.41**	.48**	1

* p< .05, **p<.01

3.2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자료의 다변량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측정변수의 일변량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모든 변수의 변량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3 이하, 10 이하로서 다변량정규성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가설모형에 사용된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0.9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본 연구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상관관계 확인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는 목표선택과 직업정보 간의 r=.84 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3 여고생의 진로결정효능감 구조모형 검정

3.3.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적 모형의 연구변수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얻은 적합도는 $p<.001$로 양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χ^2이 표본의 크기나 모델의 복잡성에 따라 모델 적합도가 영향을 받으므로, 최근 구조방정식모델에서 χ^2 통계량보다는 다른 적합지수를 비교하여 적합도를 해석하기도 한다[31]. χ^2/df=2.84, GFI=0.91, SRMR=0.05, NFI=0.91, CFI=0.93, RMSEA=0.08로 적합지수가 권장수준을 만족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3.2 가설모형 분석

가설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Fig. 2와 같다. 가설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애정적 부모양육태도,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에서 가족기능 경로($p<.001$),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에서 자기관리 경로($p<.001$), 가족기능에서 자기관리 경로($p<.001$), 자기관리에서 진로결정효능감 ($p<.001$)였다. 그러나 애정적 부모양육태도에서 자기관리 경로(p=.559),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자기관리 경로(p=.304)는 유의하지 않았다.

3.3.3 가설적 모형의 효과 분석

여고생의 진로결정효능감과 관련된 요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Table 3과 같다. 여고생의 자기관리는 진로결정효능감에 .68의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가족기능은 자기관리를 통한 간접효과 .48를 감안하여

Table 2. Model fitness Index for the hypothetical Model

(N=255)

	x2(df)	x2/df	p	GFI	SRMR	NFI	CFI	RMSEA
Goodness evaluation criteria		≤3	〉.05	≥0.90	≤0.05	≥0.90	≥0.90	≤0.08
Hypothetical model	6	2.84	<.001	0.91	0.05	0.90	0.94	0.08

GFI=Goodness of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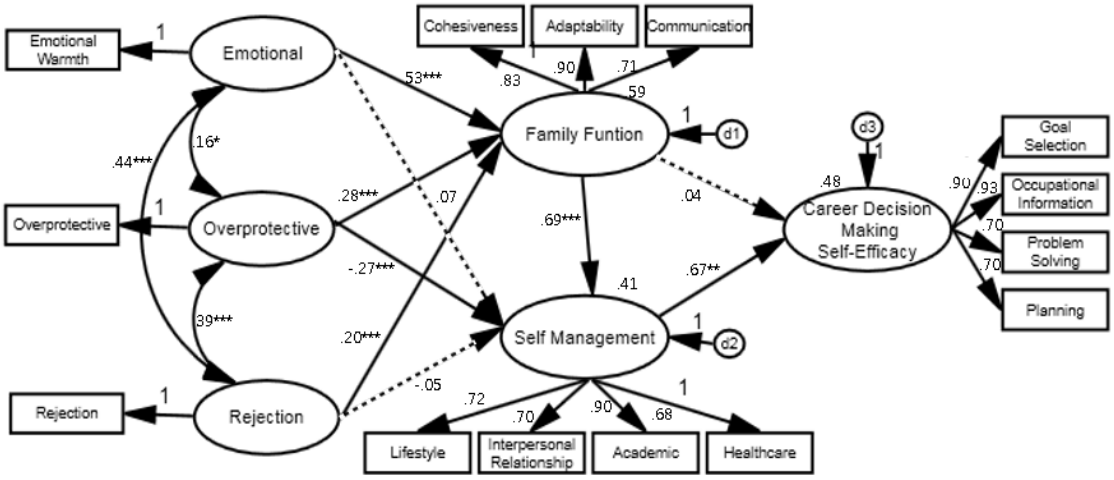

Fig. 2. Path diagram of Hypothetical model

Table 3. Regression weights for the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Modified model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SRW(SE)	t(p)	SMC			
Family Function			.59			
Emotional Warmth	.53(.06)	9.5(<.001)		.53(.015)		.53(.015)
Overprotection	.28(.07)	5.3(<.001)		.28(.007)		.28(.007)
Rejection	.20(.17)	3.6(<.001)		.20(.023)		.20(.023)
Self-Management			.41			
Emotional Warmth	.07(.05)	.91(.364)		.07(.559)	.369 (.012)	.44(.020)
Overprotection	-.27(.05)	-3.97((<.001)		-.27 (.008)	.191(.005)	-.08(.266)
Rejection	-.09(.11)	-1.35(.178)		-.09(.304)	.140 (.011)	.05(.591)
Family Function	.69(.06)	6.06(<.001)		.70(.012)		.69(.012)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48			
Emotional Warmth					.32(.019)	.32(.019)
Overprotection					-.04(.408)	-.04(.408)
Rejection					.04(.505)	.04(.505)
Family Function	.04(.08))	7.54(<.001)		.04(.513)	.48(.006)	.51(.009)
Self-Management	.67(.18)	.60(.546)		.68(.007)		.67(.007)

SRW=standardized regression; SE=Standardize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51의 총효과를 나타냈다. 여고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은 가족기능과 자기관리에 의해 48% 설명되었고,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와 가족기능은 여고생의 자기관리를 4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기능은 온정적 부모양육태도,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에 의해 59% 설명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가족기능, 자기관리의 요인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가정으로 가설적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직·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애정적 · 과보호적 · 거부적 부모양육태도는 가족기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왔다[35,36]. 특히 정서적·재정적 독립이 외국과 다르게 20대 중반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한국 청소년은 가족의 영향 안에서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많은 받음을 알 수 있다[3]. 부모는 자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환경으로, 자녀의 심리·정서적 감정을 경험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발달단계의 고등학교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정서적 방황과 대처의 상태에서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영향을 받는 것은 성장발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37]. 자녀들은 부모를 모델링으로 일상생활에서부터 배움이 이루어지며, 가족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진로결정효능감의 형성을 성장기 가정환경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는 자기관리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었으나, 애정적·거부적 부모양육태도는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양육태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으로 애정적·거부적 양육태도는 부모와의 관계 및 가족지원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통제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요인과 관련이 있다. 즉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조절을 통한 독립적 생활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주의 문화와 학력 위주의 사회에서 자율성보다는 통제적 환경이 자녀의 생활과 학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사회 학습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자녀의 적응능력, 자아탄력성, 배려심, 대인관계, 자기주도학습이 향상되고[38,39], 과보호적·거부적 양육태도는 자기개념을 약화시켜 비효율적 대처를 유발[40]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양과 다른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가족문화가 학생의 독립성 전에 부모의 통제를 당연한 과정으로 수

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의 측정도구가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을 회상하여 부모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받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것에서 나온 차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가족기능은 자기관리를 매개로 진로결정효능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가족기능이 진로결정효능감과 직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일치 하였다[5,29]. 가족기능이 잘 유지되는 고등학생은 긍정적 의사소통으로 진로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진로결정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즉,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은 가족 구성원인 고등학생의 미래 삶에 대한 목표나 방향설정에서 모델링과 상담자의 역할을 충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반면 가족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에서는 개방보다는 통제가 강하여 친밀감을 감소시키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과적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혼돈과 갈등의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건강한 가족기능의 유지는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시켜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가능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는 여고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가장 큰 직접효과를 보이는 변인이었다. 자기관리와 진로결정효능감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었지만, 자기관리와 진로적응능력[41], 진로결정수준[42], 진로성숙도[38]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으며, 자기관리프로그램의 적용이 진로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3]. 자기관리는 기술, 지식, 신념을 기반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수정하는 능력으로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31]으로 생활의 반복되는 습관으로 형성되며, 부모를 본받아 형성되어 진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헌신과 애정을 많이 표현하며, 자녀들의 독립적 존재에 대한 의견에는 다양한 이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기관리는 통제보다는 자율에서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고 융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등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양육태도와 가족기능의 영향을 받은 자기관리는 고등학생의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특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녀가 스스로 잘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훈육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직접적, 간접적 경로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여고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자기관리이며, 자기관리는 부모양육태도와 가족기능에 영향을 받아 직·간접적으로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학교 교육 만을 강조하던 측면을 확장하여,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적절한 양육태도와 구조적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융합되어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인 진로선택과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진로교육이 포함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로를 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 자아효능감, 대인관계 등의 성취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진로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미래적 대비를 위한 이해가 사회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확대를 위해서는 가족이 참여하는 진로 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 도시의 여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학령기별로 비교·반복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부모양육태도는 여러 나라에서 도구검증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연구가 필요하며,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E. L. Herr. (1996). Perspectives on ecological context, social policy, and career guidance. *T 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1),* 5-19. DOI : 10.1002/j.2161-0045.1996.tb00458.x

[2] S. K. Yoon, Y. K. Han, S. H. Im & W. Y. Kim. (2015).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College and Major Selec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2(2),* 87-107.

[3] H. K. Paa & E. H. Mcwhirter. (2000). Perceived influences on high school students' current career expectation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1), 29-44.
DOI : 10.1002/j.2161-0045.2000.tb00749.x

[4] N. A. Fouad, S. Y. Kim, A. Ghosh, W. H. Chang & C. Figueiredo. (2016). Family influence on career decision making: Validation i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1),* 197-212.
DOI : 10.1177/1069072714565782

[5] A. J. Fuligni. (2007). Family obligation, college enrollment, and emerging adulthood in Asian and Lati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96-100.
DOI : 10.1111/j.1750-8606.2007.00022.x

[6] N. E. Betz, K. L. Klein & K. M. Taylor.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DOI : 10.1177/106907279600400103

[7] R. W. Lent & S. D. Brown.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DOI : 10.1177/1069072707305769

[8] F. Guay, C. Senécal, L. Gauthier & C. Fernet.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165.
DOI : 10.1037/0022-0167.50.2.165

[9] M. S. Cho & K. S. Choi. (2007).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3),* 1085-1099.

[10] H. J. Kang. (2018). Explor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chool-life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1(1),* 43-62.

[11] S. L. Restubog, A. R. Florentino & P. Garcia. (2010). The mediating roles of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decided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xtual support and persist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2),* 186-195.
DOI: 10.1016/j.jvb.2010.06.005

[12] J. Barlow, C. Wright, J. Sheasby, A. Turner & J. Hainsworth. (2002). Self-management approaches for people with chronic conditions: a review.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48(2),* 177-187.
DOI: 10.1016/S0738-3991(02)00032-0

[13] T. L. Sexton. (2017). *Functional family therapy.* [The Encyclopedia of Juvenile Delinquency and Justice]. 1-7. NJ: John Wiley and Sons.

[14] B. K. Bryant, A. M. Zvonkovic & P. Reynolds. (2006).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and adolescent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1),* 149-175.
DOI: 10.1016/j.jvb.2006.02.004

[15] B. L. Bloom. (1985). A factor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4(2),* 225-39.
DOI: 10.1111/j.1545-5300.1985.00225.x

[16] D. R. Papini, F. F. Farmer, S. M. Clark, J. C. Micka & J. K. Barnett. (1990). Early adolescent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patterns of emotional self-disclosure to parents and friends. *Adolescence, 25,* 959-976.

[17] R. W. Lent, S. D. Brown & G. Hackett.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DOI : 10.1006/jvbe.1994.1027

[18] A. Aluja, V. Barrio & L. F. García. (2005).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memory of parental rearing styles, social values and socialisation behavior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5),* 903-912.
DOI : 10.1016/j.paid.2005.02.028

[19] E. B. Ahn & H. H. Kim. (2016).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on Academic Procrastination of Early Adolescence : Mediation effect of Self-Control and Time Management Cap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4(1),* 5-14.

[20] E. K. Slicker, B. K. Picklesimer, A. K. Guzak & D. K. Fuller. (2005).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style to older adolescent life-skills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Young, 13(3),* 227-245.
DOI : 10.1177/1103308805054211

[21] L. Steinberg, S. D. Lamborn, N. Darling, N. S. Mounts & S. M. Dornbusch.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3),* 754-770.
DOI : 10.1111/j.1467-8624.1994.tb00781.x

[22] D. K. Brooks. (1985). A life-skills taxonomy: defining elements of effective functioning through the use of the delphi techniqu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6-B),* 1931.

[23] N. E. Betz & K. K. Voyten.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DOI : 10.1002/j.2161-0045.1997.tb01004.x

[24] H. J. Im. (2011). *Analysis on the actual status and its livel of school education in Korea : (A)study on the elementary schools(3).*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5] B. Raabe, M. Frese & T. A. Beehr. (2007). Action regulation theory and career self-manag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4),* 297-311.
DOI : 10.1016/j.jvb.2006.10.005

[26] N. Bolat & H. Odacı. (2017). High school final year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ttachment styles and gender role orientations.

Current Psychology, 36(2), 252-259.
DOI : 10.1007/s12144-016-9409-3

[27] H. Y. Seon & K. H. Kim. (2007). Analysis of Research in the Influence of Parents on the Adolescent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 8(4),* 1467-1483.

[28] J. C. Heo. (2010). Effect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0(9),* 504-513.

[29] S. Y. Kim, T. Ahn & N. J. Fouad. (2016). Family influence on Korean students' career decisions: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3),* 513-526.
DOI : 10.1177/1069072715599403

[30] R. Chiesa, F. Massei & D. J. Guglielmi. (2016).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hange in Itali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94(2),* 210-224.
DOI : 10.1002/jcad.12077

[31] J. P. Woo. (2012).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Seoul: Hannarae.

[32] W. A. Arrindell & A. A. Engebretsen. (2000). Convergent validity of the short-EMBU1 and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Dutch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7(4),* 262-266.
DOI : 10.1002/1099-0879(200010)7:4<262::AID-CPP257>3.0.CO;2-9

[33] P. Noller, M. Seth-Smith, R. Bouma & R. Schweitzer. (1992). Parent and adolescent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A comparison of clinic and non-clinic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ce, 15(2),* 101-114.
DOI : 10.1016/0140-1971(92)90041-3

[34] H. S. Jeong & Y. O. Jang. (2009). The Role of Underlying Variables in Adolescent' Time-Management Ability, Self-Management and its Fact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7),* 45-58.

[35] J. E. Seo & H. J. Kim. (2012). Influences on Family Functioning: A Meta-Analysi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 20(3),* 457-486.

[36] H. J. Lee & M. H. Kang. (2008). The Validation of the PAQ and the Relationship with Parenting Style and Family Function. *Studies on Korean Youth, 19(3),* 5-31.

[37] B. Feldman. (1996). Identity, sexuality and the self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41(4),* 491-507.
DOI : 10.1111/j.1465-5922.1996.00491.x

[38] H. J. Lim & S. B. Lee. (2019). Student and Schoo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Self-Management Ability as Future Key Competency among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8(1),* 73-95.

[39] M. W. Noh, M. J. Heo & Y. S. Choi. (2015).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and Car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2),* 119-134.
DOI : 10.7466/JKHMA.2015.33.2.119

[40] S. Cella, M. Iannaccone & P. Cotrufo. (2014). How perceived parental bonding affects self-concept and drive for thinness: A community-based study. *Eating Behaviors, 15(1),* 110-115.
DOI : 10.1016/j.eatbeh.2013.10.024

[41] S. Y. Lee & T. E. Shi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Non-subject Activities on the Career Adapt-Abilities of Self-Management Competence for Older Youths.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21(1),* 115-133.

[42] H. J. Moon & S. H. Lee. (2010). Effects of Athletic Experience Characteristics and Self Management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among Highschool Student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559-570.

[43] S. Y. Kim, B. K. Seo & J. S. Kim. (2014). The effect of focused goal setting time management on career self-efficacy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0(2),* 31-47.

송 미 순(MiSoon Song) [정회원]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9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학, 보건교육, 치매
· E-Mail : trsong@hanmail.net

김 민 숙(Min-Suk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 E-Mail : mskim9597@bscu.ac.kr